

국내 인터넷 이용자 4000만명 첫 돌파

10가구 중 8가구 스마트폰 보유... 컴퓨터 보급률은 하락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가 사상 첫 4000만명을 돌파했다. 10가구 중 8가구가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등 스마트폰 보급은 늘었지만 컴퓨터 보급률은 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환경 등을 분석한 '2013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1일부터 3개월간 전국 3만 가구와 만 3세 이상 가구원 7만74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4008만명으로 2003년 2922만명에서 10년만에 1000만명 늘었다. 인터넷 이용률은 65.5%에서 82.1%로 증가했다.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9.7%에 달했다. 작년 65.0%보다 14.7%포인트 높아졌고 2011년(42.5%)보다는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늘어 유선인터넷 접속률과 컴퓨터 보유율은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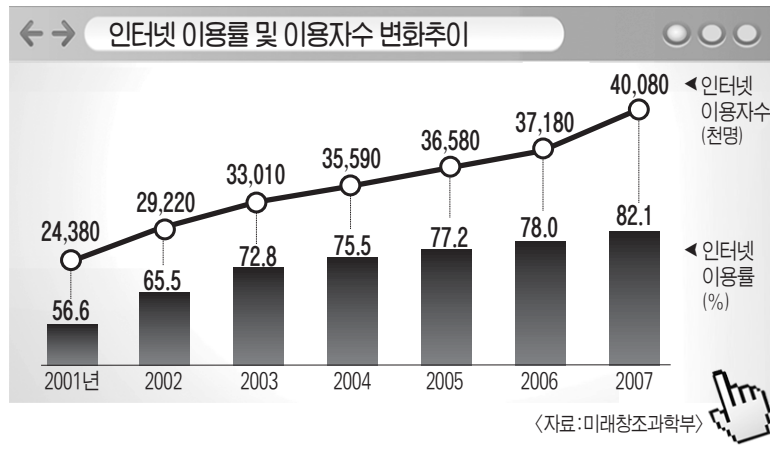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98.1%로 작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지만 유

선인터넷 접속률은 79.8%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장소에 구애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91.0%로 작년보다 32.7%포인트 급증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모바일 기기 보유율은 71.6%로 7.9%포인트 증가했지만 컴퓨터 보유율은 80.6%로 1.7%포인트 떨어져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인터넷 서비스 분야도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메일 이용률은 60.2%로 24.6%포인트 떨어진 반면,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중심의 인스턴트메신저 사



이용률은 82.7%로 22.6%포인트 늘었다. 인터넷뱅킹 이용자 중 모바일뱅킹 이용비율(2012년 29.2%→2013년 65.4%)과 인터넷쇼핑 이용자 중 모바일쇼핑 이용비율(23.8%→43.2%)도 많이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이용자 중 모바일뱅킹 이용비율(2012년 29.2%→2013년 65.4%)과 인터넷쇼핑 이용자 중 모바일쇼핑 이용비율(23.8%→43.2%)도 많이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T 'LTE+와이파이' 전송속도 5배로

KT가 광대역 LTE 망과 프리미엄 와이파이(WiFi) 망을 병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기존 LTE보다 5배 빠른 속도를 내는데 성공했다.

KT가 자체 개발한 이 기술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주파수를 묶는 '이종 망 병합(CA: Carrier Aggregation) 기술'로, 광대역 LTE와 와이파이 망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300~450Mbps까지 나와 최신 영화 한 편(700~800MB 기준)을 내려받는 데

약 15초면 충분하다.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상 버전에서 이용 가능하다. 아이폰 등 다른 OS가 깔린 단말기는 추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박재운 KT 네트워크 전략본부장은 "이 기술에 내년 상용화 예정인 20+10MHz 광대역, Giga WiFi 기술까지 병합한다면 상상 이상의 속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통신료 모바일 고지서 알기쉽게 바뀐다"

기재방식 통일... 청구내역·요금변화 추이 등 반드시 기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금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MSO의 우편이나 이메일 요금고지서에는 예상 해지비용이 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나눠 3개월마다 표기되고, 약정기

간 기간일과 만료일도 고지서 앞면에 잘 띄게 기재된다. 또 서비스별 이용요금에 청구금액, 납부금액,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분되고, 할인 내역은 별도로 기재된다.

SK텔레콤과 KT, LGU+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는 사업기간 기재 방식을 통일, 청구내역과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 해지비용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이용이 활성화 되면 이용자의 혜택 증진은 물론 이산화탄소 감소,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등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0건으로 급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세대 통신산업 키운다"

미래부, 상용화 후 7년간 570조원 시장 전망

정부는 5세대 통신(5G) 산업이 2020년 상용화되고 7년간 570조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의 '5G 이동통신 선도전략'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5년까지 프리(pre) 5G 기술 시연을 거쳐 2018년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뒤 2020년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 2위인 이동통신 특허경쟁력 수준을 2020년대 1위로 올리고 미국 대비 90% 수준인 이동통신 기술 수준도 1위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이동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20%로 높일 방침이다.

미래부는 국내 기업이 5G 이동통신 장치, 기지국 장비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2026년 총 141조원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상용화 후인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누적 476조원의 기기·장비 시장과 94조원의 국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5G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2020년 5조7000억원에서 2023년 58조원, 2026년 199조원으로 급증하고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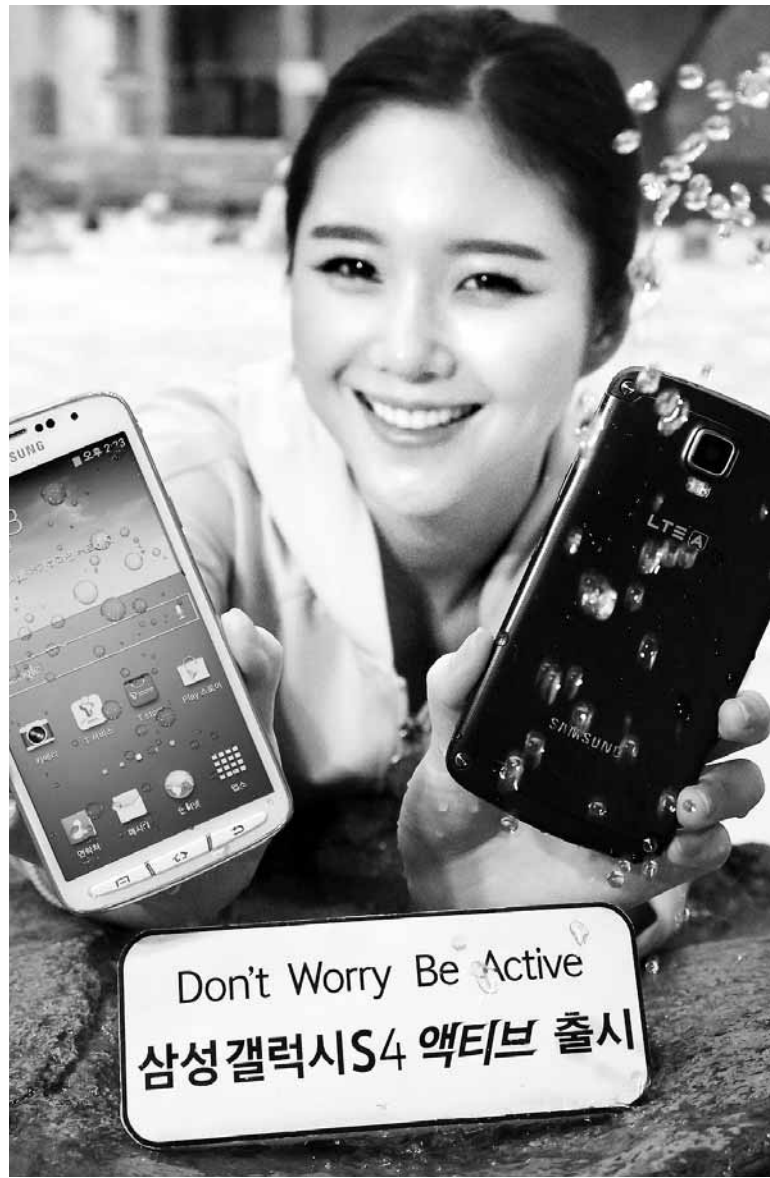
창출 효과도 2020년 1만6000명, 2023년 17만명, 2026년 57만명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5G는 셀당 100Mbps인 4G(LTE)보다 1000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과 서비스이다. 사람·사물·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인당 1Gbps급 용량과 수 msec(1000분의 1초) 이하의 빠른 처리속도를 제공한다.

미래부는 5G 산업을 키우기 위해 향후 7년간 5000억원을 연구·개발(R&D), 표준화, 기반 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홀로그램 TV 방송 등 5대 핵심 서비스 발굴, 글로벌 공조 강화, 도전적 R&D 추진, 스마트 모바일 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8대 추진 과제도 마련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갤럭시 S4 액티브 "물 속에서도 걱정 없어요"

삼성전자기 방송·방진 기능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아웃도어 특화 스마트폰 '갤럭시 S4 액티브'를 SK텔레콤 전용으로 18일 출시했다. 외부먼지 차단과 생활방수를 지원하는 '갤럭시 S4 액티브'는 캠핑·등산·스키·낚시 등 활동적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1300만 화소 카메라를 통해 맑은 수심에서의 촬영에 적합한 '이쿠아 모드'를 지원하며, 카메라 키(볼륨 키)를 사용해 물속에서도 쉽게 촬영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바라만 봐도 기기연결' 시선통신기술 개발

IP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바라만봐도 프린트에 연결해 스마트폰 자료를 인쇄할 수 있는 통신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8일 통신대상 주소 모뎀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대상을 선택하지만 하면 근접해 있는 주변 기기와 바로 연결해주는 '시선통신기술'을 개발했다.

앱을 실행한 뒤 대상을 향해 사진을 찍으면 레이더 빔처럼 전파빔을 쏘아 좌우 16도 범위에서 들어온 대상을 탐색해 통신하는 방식이다.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와이파이 다 이력 망을 이용해 단말간에 직접 통신하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비가 들지 않고, 시선이 향하는 범위 안에 있는 기기만 탐색하기 때문에 수초안에 연결할 수 있다.

특히 10cm 안에서 작동하는 NFC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 구글 안드로이드 범 통신방식과 달리 최대 70m까지 탐색할 수 있다. 회의실에서 동료의 이메일 주소나 메신저 아이디를 몰라도 사진이나 자료를 자유자재로 전송할 수 있고 휴대전화, 프로젝터, 프린터 등 다양한 기기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식당, 백화점 등 간판을 스마트폰으로 비추고 터치하기만 하면 해당 업체의 메뉴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정보를 통신비를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으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는 이들에게 대피 경로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

앞으로 안정형태의 단말과 같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Wearable smart device)에 사용하거나 셀룰러 기반 기간 직접통신 방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안 검토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월 2500원인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1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KBS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KBS 수신료 조정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통위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11명의 이사 중 여당 측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7명 전원 찬성으로 인상안을 의결 처리했다.

KBS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

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해 공정성을 확보하며,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수신료를 1500원 인상함으로써 광고를 연간 2100억원 축소하고, 광고 비중을 지난해 40%에서 20%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신료 비중을 37%에서 53%로 올리려 한다고 밝혔다.

또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와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 수상기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략적으로 해왔다고 방통위 사무처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학원,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형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4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 5천),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 벽진동 창고,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급매,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읍 대로면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용산동 재개발지역 주택 대지 40평 은행 4천 매도 8200
- 투자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대지 539㎡(163)8500만원
- 함평군 영일동 칠리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3천
-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임야 71430평 평당 3천원 2억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충족도 가능 33억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부류37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담양군 순창간 모텔 땅 1745㎡(528)건물은 160평 객실18개 은행 3억7천 개발가능한 산과 교환도 가능 5억
- 그린벨트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입구 2425㎡(734)공시기에 매도 3860만원 통용사옥·아파트용 적합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6000만원
- 모텔, 전복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출6억2천 매도 8억3천
- 임야 무안군 용탄면61890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6천
- 사철적합 건물 합평군 월야면 땅 2657㎡(804)건물 2층 57평 은행 2억 기도원용 산 주택과 교환도 가능 5억
- 상촌동 원룸 대지 51평 건평 84평 원룸, 쓰리룸 5개 2억4천
- 신안군 입해도 바닷가 전 2144평 평당 18만원 3억9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매도·임대

- 생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임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대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1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7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공장 급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